§§

産業環境情報

- 환경장벽의 대두현황과 시사점 -

김정인 포스코경영연구소 연구위원

(註 : 상공회의소의 산업환경정보 게재 자료인용)

Ⅰ. 환경보호와 무역규제 연계의 배경

1. 환경문제의 대두

'80년대 이후 전세계적으로는 급속한 산업화의 결과로 초래된 오존층파괴, 생물종의 멸종 및 기후변화 등 전지구적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개별국가 차원에서는 국민의 환경의식의 변화와 환경운동 단체의 활동증대로 인해 환경개선 노력이 강화되고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개별국가의 환경개선 노력만으로는 환경문제의 효과적 해결이 곤란하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어 환경보호와 무역규제를 연계하려는 움직임이 가시화되고 있다.

2. GR의 논의배경

환경과 무역의 연계논의는 경제적 수단을 포함 다자간 환경협정, OECD, WTO의 무역-환경 연계논의, 개별국가들의 환경규제조치, 환경마크제도, ISO 규격제도의 도입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환경과 무역의 연계논의에 대해 선진국들은 자국의 환경개선 뿐 아니라 환경기준 강화를 통한 자국의 경쟁력 강화의 수단으로 활용하려 하고 있는데, 이는 우리나라 등 개도국에게 환경장벽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Ⅱ. 무역-환경 연계의 내용

§§

1. 다자간 환경협약(국제환경협약)

전세계적으로 국제환경협약은 216개가 있으며, 그 중 우리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대표적인 협약은 기후변화협약, 바젤협약, CITES 등 37개이다.

1) 기후변화협약

지구온난화 방지를 목적으로 하는 기후변화협약에 따라 2008년~2012년까지 선진국들은 온실가스를 '90년 대비 평균 5.2% 감축하기로 합의하였다. 이에 따라 미국은 온난화 방지를 위한 조세특례제도를 마련하고 청정 · 재생에너지 개발을 위해 '98~2003년까지 63억달러의 투자할 계획을 세우고 있으며, 유럽자동차제조협회(ACEA)는 2008년까지 자동차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90년 대비 25% 감축할 것을 목표로 2005년까지 신차의 CO_2 배출량을 120g/km까지 감축하기로 하였다.

이러한 각국의 조치로 인해 자동차 연료효율 강화, 가전제품, 전기기기의 에너지 효율기준의 강화가 예상된다. 특히 EU의 경우 2000년부터 절전형 TV, 미작동 상태에서 전력사용량이 10W 이하인 가전제품만 유통을 허용할 예정이다.

2) 바젤협약

유해폐기물의 국가간 이동을 금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바젤협약은 세계관세기구와 규제대상 및 비대상 폐기물의 모든 목록에 HS 코드를 부여하고, OECD 회원국의 비회원국에 대한 유해폐기물 교역을 금지하고 있다.

3) CITES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의 상업적 포획 · 채취와 이의 상거래를 제한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ITES)은 규제대상 동식물을 부속서 Ⅰ,Ⅱ,Ⅲ에서 구분하여 수출입시 사전에 수출입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유전자 변형식물, 환경호르몬 물질규제로 발전할 것으로 전망된다.

2. OECD 무역 · 환경위원회 주요 쟁점사항

1) 무역자유화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

§§

일반적으로 효과적인 환경정책이 수립·시행되고 있다면 무역자유화는 자원의 효율적 배분, 경제·복지의 성장을 통해 환경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 그러나 비용 내부화 등 효과적인 환경정책이 결여된 경우 또는 왜곡적인 국내정책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무역자유화에 따른 경제행위의 확대가 환경문제를 야기하는 원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2) 경쟁력

정부정책이나 소비자의 선호도에 따른 환경기준은 국내 생산자 및 국가의 경쟁력에 긍정적 효과가 있으나, 이를 위해서는 경쟁력 유지를 위한 정책적 접근이 고려되어야 한다.

3) 환경보전 목적의 무역조치 사용

각국은 국내 환경문제에 대처할 권리와 능력을 갖춰야 하며 월경, 지역, 지구적 환경문제에 대해 국제적인 협력을 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가장 효과적이고 능률적인 수단을 갖춤과 동시에 개방, 무차별, 형평에 맞게 다자간 무역체제를 유지하여야 하며, 각국은 특정의 경우에만 무역을 환경보호의 수단으로 삼을 수 있다.

4) PPMs(Processes and Production Methods)

현행 무역규범은 PPMs가 제품의 성질에 영향을 미칠 경우 현행 PPMs를 근거로 한 무역조치의 사용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다자간 무역규범은 수입품에 물리적으로 체화되지 않아 수입국의 환경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경우 수입제한을 금지하여야 한다.

5) LCA와 무역

일반적으로 포장, 리사이클링, 재활용제품, 라벨링 등 다양한 형태의 LCA 기준, 정책들은 무역을 저해한다. 따라서 OECD회원국은 관련 다자간 무역규범에 따라 LCA에 기초한 정책수립이 외국 수출업자에게 불필요한 무역효과를 주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6) 경제적 수단과 무역

OECD는 환경세, 부과금, 배출권거래, 예탁환불과 같은 경제적 수단에 대한 보완과 환경정책 이행에 대한 자발적 협조를 장려한다. 다만 외국의 생산자에게 불이익이 되지 않도록 경제적 수단의 도입은 투명하고 수입 중립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

3. WTO에서의 논의내용

환경보호를 이유로 한 무역조치에 대한 WTO 논의에 대해 선진국은 환경보호를 위한 무역 및 환경조치가 보다 포괄적으로 무역규범에서 허용되어야 하며, 현 무역규범의 집단적 해석 또는 개정을 통해 제품과 관련이 없이 PPMs에 기반한 다자간 무역조치가 허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반해 개도국은 환경보호를 이유로 한 각종 무역 및 환경조치가 현저한 무역효과를 동반하는 경우 남용을 억제할 수 있도록 무역규범을 보완하여야 하며, 다자간 무역조치의 경우 현 무역규범안에서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선진국과 개도국의 입장차이 속에서 진행된 WTO의 무역과 환경의 연계논의는 다음과 같이 구분된다.

1) 사전적 접근방법

WTO 회원국이 협상을 통해 사전적으로 다자간 무역조치의 수용을 위한 기준을 설정하려는 논의로, GATT 제20조를 재해석 또는 개정하여 환경관련 무역조치를 수용할 수 있도록 하는 원칙에 관한 논의이다. 이 경우 사전적 기준은 국제환경협약에 관한 기준과 GATT 제20조의 해석기준으로 구성된다.

2) 사후적 접근방법

다자간 무역질서의 안전성을 최대한 유지하면서 환경관련 무역조치가 WTO 규범과 마찰을 일으키는 경우 분쟁별로 해결하자는 방안으로, 이는 WTO 규범이 이미 상당한 정도로 환경관련 무역조치를 사용할 여지를 제공하고 있다는 인식에 기초한다.

3) 혼합식 접근방법

사전적 접근방안과 사후적 접근방안의 주요 요소를 혼합한 방식으로 사전적 방안과 유사하게 수용기준을 설정하고 다자간 무역조치를 사례별로 GATT 혹은 그와 유사한 절차를 통해 기준에의 부합하는지를 결정하는 방안을 말한다.

4. 개별 국가의 무역규제 강화사례

1) 독일

§§

독일의 폐기물 포장법은 제조물 책임원칙(PP)에 의건 생산자가 폐차, 폐가전제품 등 폐기물을 직접 회수·처리하도록 의무화하고, 쿼터를 정하여 일정비율 이상을 재활용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물질순환법은 모든 제품의 폐기물을 회수·처리하기 전에 더 이상 재활용이 불가능하다는 증명을 받도록 요구하고 있다.

2) 미국

미국의 펠리수정법은 멸종위기 동식물의 불법거래행위가 확인될 경우 그 대상국에 대하여 관련제품 뿐만 아니라 어떠한 수입제품에 대해서도 무역제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가방, 스티로폴 등 CFC를 사용한 제품에 대해 경고라벨을 부착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3) EU

EU는 자동차 배출가스 기준과 가솔린 및 디젤엔진의 오염물질 배출기준을 강화하였으며, TV, VCR에 대한 에너지절약 프로그램 등을 실시하고 있다. 이러한 EU의 환경규제로 인해 우리나라의 EU 수출액 중 환경규제 대상이 34.2%에 이르고 있다.

5. 환경마크제도의 도입

'79년 독일에서 도입되기 시작한 환경마크제도는 환경마크를 부착하지 않은 제품에 대한 유통 및 판매금지 등을 통해 환경마크 미부착 제품에 대해서 무역장벽으로 작용하게 된다.
그 예로 EU는 표준 에너지라벨을 부착하지 않은 가정용 세탁기와 건조기의 판매를 금지한 바 있다.
현재 WTO와 OECD에서는 표준/기술규정, 포장, 환경마크 및 재활용 등을 포함한 제품표준요건을 주요 쟁점으로 논의 중에 있는데, 국제표준화기구(ISO)에서 LCA에 관한 기법이 표준화되면 환경마크제도가 급속히 확산될 전망이다.

6. ISO의 활성화

국제표준은 자발적인 가입이 원칙인 민간중심의 기구로 의무적으로 인증을 획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국제표준의 인증을 획득해야 조직의 성실성과 신뢰성을 국제적으로

§§§

인증받을 수 있고, 선진국에서는 이를 무역규제의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다.

Ⅲ. 우리기업의 시사점

1. 환경에 대한 인식전환

'80년대에 환경은 기업들은 생산활동을 함에 있어 지켜야 하는 최소한의 법적 기준에 불과하였다. 그러나 '90년대들어 선진국의 신 환경정책과 녹색 소비주의의 확산으로 인해 선진국 시장진입을 위해서는 반드시 환경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게 되었다.

이러한 환경의 중요성은 '90년대 이후 시작된 무역과 환경의 연계논의가 가시화되는 2000년 이후에 더욱 증대할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우리 기업들도 환경이 기업의 생존을 위한 필수 요소라는 인식을 가지고 기업경영에 있어 환경에 대한 고려를 우선적으로 하여야 할 것이다.

2. 기후변화협약에 대한 대응

온실가스 배출저감 의무부담국이 아닌 우리나라에 대한 선진국들의 동참압력이 거세어 짐에 따라 국가 뿐 아니라 기업차원의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를 위해 단기적으로는 이산화탄소 저감을 위한 자발적 저감계획을 수립하고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생산공정을 개선하여야 한다. 중장기적으로는 에너지 및 환경기술 개발에 대한 투자를 증대하고, 청정에너지 개발과 이산화탄소 저감기술 개발에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다.

3. 환경경영체제의 구축

환경을 이유로 한 무역규제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소비자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환경경영체제의 구축이 시급히 요구된다. 환경경영을 통해 기업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고 소비자의 관심을 기업경영에 반영할 수 있어 결국 기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게 된다.